

제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직속 모두의나라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시	2025년 5월 20일
위원장	고영인	담당자	상근실무자 이진옥 팀장 (010-3906-2561)

이재명 후보직속 ‘모두의나라위원회’

부·울·경 지역 역량 결집 박차

- 오늘 오후, 부산에서 주요 인사 임명장 수여. 김영춘, 전재수, 박재호 참석.
- 행사 직후, 부산 서면 유세 합류
- “모두의나라, 진짜 대한민국 부산이 함께하면 꿈이 아니라 현실”

지역순회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제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직속 모두의나라위원회 (위원장 고영인, 이하 위원회)가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발돋움하는 부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선거연락소(서면 NH빌딩 10층)에서 전진대회를 열고 부·울·경 지역 핵심 위원 위촉 및 임명장 수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부산총괄 선대위원장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선대위원장 박재호 전 의원이 참석했다.

‘모두의나라위원회’는 지난 4월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겨뤘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슬로건인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서 명칭을 따왔다. 김 지사의 대선 경선 캠프를 총괄했던 고영인 전 경제부지사가 ‘모두의나라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경기도 정무수석을 역임한 윤준호 전 의원(제20대 국회, 해운대울)이 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고영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의 통합이 절실한 시점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의 나라는 진짜 대한민국의 씨앗이다. 부산에도 취지에 동감하는 동지들이 많다. 이 분들의 역량이 모이면 정치의 극단적 진영화, 경제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춘 공동선대위원장은 “모두의나라위원회가 통합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위원회의 활동이 큰 힘이 될 것”라고 말하며 위원회 활동에 힘을 보탤

다. 전재수 부산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작은 차이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기에 한 데 모였다. 여러분들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지키는 힘” 라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박재호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은 “4기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기쁘다” 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퍼포먼스로 갈등과 분열 극복, 통합과 비전 정치 실천의 의지를 다지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행사 종료 직후 고영인 위원장은 서면역 일대에서 열린 지역유세에 함께해 “경기 도지사 시절 무상급식을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했던 사람이 김문수 후보 “라고 꼬집은 후 “탄핵에 찬성했던 모든 세력을 모아 진짜 대한민국의 비전을 만들려는 이재명 후보를 민주정부 4기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부산 시민에게 호소했다. 유세를 마친 후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인사를 나누며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끝)

-행사사진 별첨-





